

“코로나19 확산 유발자 처벌 강화해야”

거짓 진술·숙박업소 불법파티에 도민들 ‘부글부글’ 도 “목사 부부에 손해배상 청구… 방역 방해 무관용”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확진자의 거짓 진술 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는 물론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침에 따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등 사안이 크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법무관련 관계자도 “제주도재난대책본부에서 이들 부부의 정확한 동선 파악 및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전 사례 등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역당국의 협조가 부족해 엉뚱하게 행정력 낭비는 물론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측에 전달했다.

도민 K(46·제주시 화북동)씨는 “매일 노심초사하며 가족 모두가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의 무분별한 파티나 일부 확진자

의 거짓 진술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도민만 조심해서 될 것이 아니라 불법·변칙 영업장 업주나 거짓 진술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30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3인 이상 집합에 따른 행정명령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일명 ‘헌팅포차’ 등 유사한 고위험시설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차단 행정 지침·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백금탁기자



31일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서부보건소 임시진료소에서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전력이 있는 주민들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불안감 증가로 인해 강회만기자

“별초철 예초기 사용 주의하세요”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도 “9~11월 사고 집중”

이번 주부터 예초기, 파쇄기 등 농기계 사용이 잦아지는 별초와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6일을 기해 제주 전역에 ‘별초·농번기철 농기계 등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는 농기계 사고 환자가 277명(사망 7명, 부상 267명, 기타 3명) 발생했다. 농기계 안전사고 환자는 2017년 92명, 2018년 81명, 지난해 104명으로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사고 중

52.7%(146명)가 예초기·파쇄기·경운기를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 특히 농기계 사용이 잦아지는 별초철이자 농번기인 9~11월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 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비 사용 중 기계 회전부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예초기는 사용 시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용 전 각 부분의 부착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중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운기 등은 등화장치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짐을 실을 때 뒤에 오는 차량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4·3평화재단, 4·3기록물 수집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위해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4·3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와 평화재단은 4·3 당시와 이후 진상규명운동을 증언하는 기록물을 수집해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은 해방 이후 1947년 3·1사건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기까지 4·3시기의 상황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언할 수 있는 문서, 편지 및 엽서, 사진, 영상, 유물 등이다. 아울러 4·3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담은 각종 자료도 수집한다.

수집한 유물은 선별을 거쳐 올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4·3 아카이브 특별전에 전시하는 한편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주요한 자료로서 향후 전시·교육·연구 등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도와 평화재단 관계자는 “4·3을 증언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4·3의 역사를 ‘기록’으로 미래세대에 남기기 위한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화재단 홈페이지(<https://jeju43peace.or.kr>) 또는 평화재단 조사연구실(064-723-4313)로 문의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올 여름 해수욕장 피서객 ‘반토막’

올해 102만명 찾아… 전년보다 46% 감소 코로나19·긴 장마 영향 개장일수도 줄어

장마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 급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11개소를 운영한 결과 총 102만명이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방문객 189만명보다 87만명(46%) 감소한 수치다.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개·폐장, 야간 개장 미운영 등으로 인한 짧은 운영기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운영기간은

지난해 71일에서 올해 53일로 18일 줄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3일까지 해수욕장 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안전사고 방지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폐장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소 1만여마리 브루셀라·결핵 검사 ‘음성’

서귀포시 “17년간 발병없어”

서귀포시가 소 전염병 청정지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을 주축으로 지역 내 농장을 방문, 만1세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후 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56농가 1만 324두(브루셀라 5156두, 결핵 5168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 끝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 소브루셀라병 의양성 판정을 받은 축우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육되던 186두에 대한 재검사 역시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영총기자